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김남석* · 박효선**

목 차

- I. 서론
- II. 군 정신전력 교육의 이론적 고찰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 VI. 결론 및 제언

I. 서론

한반도는 1954년 제네바 휴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래 약 70여 년간 상호 정치적·군사적·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대결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은 6·25전쟁뿐만 아니라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 등 수많은 무력도발을 통해 군사적 대결의 긴장을 지속시켜 왔다. 특히 김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국방안보학과 박사과정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국방안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정은 정권 출범 이후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크게 강화되었고, 그 결과 국가 경제는 한국에 비해 47배(국민 총소득)나 뒤떨어진 낙후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태영호 전 북한 영사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현대판 노예 수준”이며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생존권과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증언했다.¹⁾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권과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된다면 북한의 체제 유지와 경제난은 더욱더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회담과 동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합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가 도래하였다. 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체육 회담과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대한민국을 그 어떠한 세력이 침범한다면 군대와 군인은 목숨을 바쳐 싸워 이겨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민간인과는 다른 투철하고도 강인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정신전력은 정신과 전력의 합성어이다. 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 장병 개개인의 군인정신을 말하며, 전력은 군 집단이 갖추어야 할 집단의 전투수행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을 전력화하기 위해선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솔능력을 발휘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전투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태영호,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 도서출판사, 기파랑 2018), pp. 513~516.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군이 정신전력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 국가 간의 전사(戰史)가 증명하듯이 전쟁의 승패가 물질적인 전투력보다는 정신전력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쟁론(Vom Kriege)」을 저술한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K.V.Clausewitz, 1780~1831)가 “물질의 힘을 칼집이라 한다면 정신력은 시퍼런 칼날이다.”라고 말했듯이 정신전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²⁾ 군에서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3631호)³⁾ 제5조 1항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항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만약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군사적 측면의 갈등 중에서 이념 갈등이다. 특히 군(軍)을 대상으로 남북한 간의 정신전력 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⁴⁾하는 데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신전력 교육

2) 권병주 외,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 발전방안」(서울: 국방부, 1991), p.12.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3631호)」은 2016년 6월 30일 부로 시행된 법령이다. 지금까지 국군의 이념과 사명, 군인의 복무와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여 왔다. 「군인복무규율」은 병영생활 규범이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3월 15일 제정되었고, 이후 시대상황과 복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의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보도자료(2016.6.29)참조.

4) 김법현, “북한 이념갈등의 특징과 극복에 관한 연구 : 군 정신전력교육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43집 1호」, (광주: 조선대학교, 2018), p.252.

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I. 군 정신전력 교육의 이론적 고찰

1. 정신전력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1998)에 의하면 군 정신전력 교육이란 정신전력 지도활동의 하위 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립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정신전력 교육은 지휘관, 참모, 교관이 장병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전달, 주지시킴으로써 이해와 감화를 통하여 군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가치관을 정립하고 행동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국방부는 국력(전력)을 외교적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며 국내 정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치 전력,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즉각적인 전시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전력, 종교와 체제에 대한 신념, 애국심 등 국민의 정신적 결속력과 상대국의 사상 전력을 분쇄할 수 있는 정치·체제적 자신감을 의미하는 사상 전력, 병력·무기·장비·물자 등의 양과 질, 장병들의 훈련 숙달 수준과 전투의지, 전술운용 능력 등으로 구성되는 군사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군에서 전력(戰力)은 군사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

5) 국방부, 위의 책, p.31.

6) 국방부, 『국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서울: 국방부, 1998), pp.27-30.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전력은 병력, 무기, 장비, 물자의 양과 질적 수준이 강약을 결정하는 같은 유형적 전력과 장병의 교육훈련 수준, 전투의지, 기술운용 능력 등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그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전력으로 구성된다.⁷⁾ 동서고금의 전사를 통해 전쟁의 승패는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승수 관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형적 전력과 무형전력 중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전력의 강약 여부는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전장환경인 시간과 장소, 기후 그리고 주변국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력(군사력)은 교육훈련, 전기전술, 군기, 사기, 단결, 전투의지 등 무형적 요소로 구성된 무형전력과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 질적 수준과 수량으로 결정되는 유형전력의 승수에 시간, 장소, 기후 등 전장 환경과 주변국의 영향 등 기타 요인을 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⁸⁾

전력(군사력)은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의 승수 요인에 기타 요인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전력은 전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전투를 대비하거나 임하는 군인이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된 것으로 무기,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사용법 숙달 및 기량 향상을 통해 전력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전력, 전략전술, 지휘통솔, 부대관리 능력과 같이 병력, 장비, 물자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력 운용을 향상시키는 능력인 운용 전력, 그리고 각개전투요원의 의지력을 집단적 의지력으로 통합, 발현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인 전투의지로 구분할 수 있다.⁹⁾

정신전력은 각개 전투원의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과 같은 군인정신 혹은 전투의지를 육성하는 개인적 차원, 이를 군기, 사기, 단결과 같은 집단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집단적 차원이 공존하며, 개인적

7)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7), pp.22-23.

8) 국방부, 위의 책, pp.22-23.

9) 국방부, 위의 책, pp.22-23.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뒷받침되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전쟁 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 즉, 각개 전투원이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면 이들로 구성된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 등이 강화되고 반대로 군기, 사기, 단결 등이 증진되면 각개 전투원의 군인정신도 함양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군의 정신전력은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력이며, 이는 생활교육, 정신전력교육, 각종 훈련 등을 통하여 각개 장병의 군인정신을 부대 전체의 집단정신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달성”¹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군에서 말하는 정신전력 교육은 정신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장병들의 가치관, 태도, 신념 등 도덕적 의식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부대 차원의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정신전력교육은 지휘통솔, 리더십, 인격지도, 군법교육, 정훈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 정신전력교육은 전쟁 및 전투, 임무수행의 목적과 수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이론적, 원리적으로 습득하는 단계인 인식단계, 이를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의 목적과 수호해야 할 가치들이 몸에 배어 행동화될 수 있도록 신념화되는 단계인 내면화 단계, 습득된 가치와 규범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적용 단계의 세 과정을 거쳐서 정신전력으로 나타난다.¹²⁾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육성을 위한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군인정신 체득과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안보관을 확립 및 건전

10) 하두철, “국방정신전력 전달기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 44호』, (서울: 국방대학교, 2013), p.256.

11) 국방부, 위의 책, p30.

12) 이종현 등, “정신전력 육성 방안 - 정신전력교육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2000), p.31.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교양 증진, 군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2. 정신전력 교육의 중점

기본 개념은 2018년도 개정된(2018. 2. 2) 국방부 훈령에는 군 정신교육과 정신전력 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군 정신교육의 목적은 가치관 및 태도 변화와 신념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등 인간 정신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교육으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의 제고에 두고 있는 반면에 정신전력 교육은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순수한 정과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신교육은 정과시간에 실시하는 정신전력 교육뿐만 아니라 지휘관 시간까지 실시하는 정신교육까지 포함한 총체적 교육으로 정신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¹³⁾ 특히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다.”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는 이념과 사명에 근거하여 군의 존재 목적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⁴⁾

군 정신교육은 학교 정신전력 교육, 신병 정신전력 교육, 부대 정신전력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신분별, 과정보로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고 교육목표 및 요망 수준과 방법은 차별화하고 있다. 정과

13) 2018년도에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정과시간에 실시하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이 정신교육에서 정신전력교육으로 용어가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교육은 정신전력교육과 지휘관 정신교육을 포함한 광의적 차원에서 정신교육으로 용어를 사용하였음.

14) 육군본부,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대전: 육군인쇄창, 2016), p.9.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교육시간 관련 교재는 국방부에서 발행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등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반복 교육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교 정신전력 교육은 신분별, 과정별로 구분하여 교육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신념화에 중점을 두고 발표 및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둘째로, 신병 정신전력 교육은‘先 정신무장, 後 전투기술 숙달’ 개념 하에 일진불사(一戰不辭)의 정예 전투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한다. 교육 기간 중 신병들의 전투의지 함양을 위해 주요 전투사례에 대한 영상물 시청, 군가 가창, 구호제창, 결의대회, 시각 매개물 부착 활용 등 수시 기회 교육을 강화한다.¹⁵⁾

셋째로, 부대 장병정신 교육은 기간 장병의 핵심적인 정신교육으로 일일 정신전력 교육, 주간정신전력 교육, 반기 집중정신전력 교육과 간부 정신전력 교육, 정훈장교 순회교육, 초빙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중 일일 정신전력 교육은 취침 前 10분 내·외로 실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하되 부대 임무와 특성에 따라 생활화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정과교육 시간에 실시하는 주간 정신전력 교육은 ‘국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와 국방일보를 통해 발표와 토의식으로 진행하고, 시사 안보 전문가 초빙하여 국가관과 안보관을 배양한다. 또한 장병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단결심 배양 등 군인정신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¹⁶⁾ 이처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신교육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의 가치관을 신념화시켜서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15)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p.82.

16) 육군본부, 『2018년 정훈공보활동 지시』 (대전: 육군본부, 2018), p.2~10.

Ⅲ. 연구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의 의식은 북한에 대한 동족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른바 ‘적’과 ‘아군’이 혼재되는 관계로 종전과 같은 확고한 안보관 확립 기대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회적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군내의 교육 환경은 장병들로 하여금 정신전력 교육을 외면케 하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육의 현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00부대의 신병교육대 및 00대대 장병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00부대의 신병교육대와 00대대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대학 또는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를 직접 접하고 입대한 상태로서 정신전력 교육 차원의 인식 등을 체감할 수 있으며, 기존 00대대의 경우는 입대 후 지금까지 짜여진 정신전력 교육과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장병들에게 국방정신전력의 운영과 진행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본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91부로 12부를 제외한 1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신병 정신전력 교육의 인식 정도(5문항), 부대 정신전력 교육의 만족도(4문항),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개방형 의견(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 주요 범주 | 수 행 임 무 | 문항수 |
|---------------|---|-----|
| 정신전력교육의 인식 정도 |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2), 교육의 필요성(2), 한반도 평화와 변영시대에 부합한 교육내용(1) | 5 |
| 정신전력교육의 만족도 | 공부 양 변화(1), 의욕변화(1), 관심 변화(1), 성적 변화(1) | 4 |
| 개방형 의견 | 미 활성화 이유(3), 활성화 방법(1) | 4 |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변영시대를 직접 접하고 입대한 상태로서의 정신전력 교육 인식과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빈도 분석은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원자료(raw data)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변수들의 빈도, 중심 경향치, 분포도 등 변수의 개략적 특성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주제를 항목으로 나열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했다. 이어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와 변영시대를 직접 접하고 입대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 인식 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던 신병교육대 및 00세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정신전력 교육의 인식 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단, 설문지의 분석 결과 의미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거나 필요성이 미흡한 내용 또는 관련성이 먼 내용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정신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력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신병 정신전력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신병 정신전력 교육내용의 적절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매우 적절 했다 | 18 | 18.4 |
| 조금 적절 했다 | 52 | 53 |
| 보통이었다 | 23 | 23.5 |
| 적절하지 않았다 | 5 | 5.1 |
|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 0 | 0 |
| 계 | 98 | 100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병 정신전력 교육 후 교육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적절 했다고 응답한 신병은 18명(18.4%)이고 조금 적절했다가 52명(53%)이며, 보통이었다는 23명(23.5%)이었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신병은 5명(5.1%)이었다. 이로 볼 때 정신전력 교육 내용은 신병에게 적절한 교육임을 인식하는데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둘째, 신병 정신전력 교육 내용의 이해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신병 정신전력교육 내용의 이해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크게 도움이 되었다 | 42 | 42.9 |
| 약간 도움이 되었다 | 37 | 37.7 |
| 보통이었다 | 15 | 15.3 |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 4.1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0 | 0 |
| 계 | 98 | 100 |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병 정신전력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42명(42.9%)로 나타났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7명(37.7%)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었다가 15명(15.3%)이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신병은 4명(4.1%)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전력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안보관 확립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신전력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신전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신병 정신전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매우 필요했다 | 25 | 25.5 |
| 필요했다 | 43 | 43.9 |
| 보통이었다 | 17 | 17.3 |
| 불필요하였다 | 8 | 8.2 |
| 매우 불필요하였다 | 5 | 5.1 |
| 계 | 98 | 100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병 정신전력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신병이 25명(25.5%)이고 필요했다가 43명(43.9%)이며, 보통이었다가 17명(17.3%)이었고 불필요하였다고 응답한 신병은 8명(8.2%)이고 매우 불필요하였다는 5명(5.1%)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신병 정신전력 교육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신병 정신전력 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신병 정신전력 교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중에 교육 환경 향상에 응답한 신병은 49명(50%)이고 교육 내용 개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으로 응답한 신병은 24명(24.5%)이며, 교육시간 확대로는 11명(11.2%)이었고 교관전문성 신장은 8명(8.2%)이었다. 그리고 교관수준 향상으로 응답한 신병은 6명(6.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정신전력 교육의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5〉 신병 정신전력 교육 개선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교육 환경 향상 | 49 | 50 |
| 교육 내용 개선 | 24 | 24.5 |
| 교육 시간 확대 | 11 | 11.2 |
| 교관 전문성 신장 | 8 | 8.2 |
| 교관 수준 향상 | 6 | 6.1 |
| 계 | 98 | 100 |

다섯째,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한 교육 내용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지원 대상 | 18 | 18.4 |
| 협력 대상 | 44 | 44.9 |
| 포용 대상 | 11 | 11.2 |
| 경계 대상 | 12 | 12.2 |
| 적대 대상 | 13 | 13.3 |
| 계 | 98 | 100 |

<표 6>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으로 협력·협력·지원 대상이라고 응답한 신병은 73명(74.5%)이고,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경제·적대 대상으로 응답한 신병은 25명(25.5%)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정신전력 교육의 학습능력 향상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많이 향상되었다 | 5 | 6.2 |
| 조금 향상되었다 | 23 | 28.4 |
| 별로 차이가 없었다 | 42 | 51.8 |
| 조금 저하되었다 | 11 | 13.6 |
| 많이 저하되었다 | 0 | 0 |
| 계 | 81 | 100 |

<표 7>에 의하면 정신전력 교육의 학습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장병은 5명(6.2%)로 나타났고 조금 향상되었다가 23명(28.4%)이며,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42명(51.8%)이었고 조금 저하되었다는 11명(13.6%)로 응답하였다. 이로 볼 때 정신전력 교육의 학습능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전력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학습에 대한 의욕이 생겼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습에 대한 의욕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훨씬 높아졌다 | 8 | 9.9 |
| 약간 높아졌다 | 37 | 45.7 |
| 별로 차이가 없었다 | 18 | 22.2 |
| 약간 떨어졌다 | 16 | 19.7 |
| 훨씬 떨어졌다 | 2 | 2.5 |
| 계 | 81 | 100 |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표 8>에 의하면 학습에 대한 의욕이 훨씬 높아졌다고 응답한 장병은 8명(9.9%)로 나타났고 약간 높아졌다는 37명(45.7%)이었으며, 별로 차이가 없었다가 18명(22.2%)로 나타났고 약간 떨어졌다는 16명(19.7%)이고 훨씬 떨어졌다고 응답한 장병은 2명(2.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장병 정신전력 교육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여덟째,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흥미가 생겼는가를 설문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흥미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매우 많아졌다 | 19 | 23.4 |
| 조금 많아졌다 | 22 | 27.2 |
| 전과 같았다 | 37 | 45.7 |
| 조금 적어졌다 | 3 | 3.7 |
| 매우 적어졌다 | 0 | 0 |
| 계 | 81 | 100 |

<표 9>에 의하면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흥미가 매우 많아졌다는 19명(23.4%)이고 조금 많아졌다고 응답한 장병은 22명(27.2%)이며, 전과 같았다는 37명(45.7%)고 조금 적어졌다는 3명(3.7%)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욕구, 사전 지식을 이해하고 개인 차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홉째, 정신전력교육 평가점수는 향상되었는가를 설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정신전력 교육 평가점수 향상

| 항 목 | 응답자 수(명) | 비 율(%) |
|------------|----------|--------|
| 많이 향상되었다 | 19 | 23.4 |
| 약간 향상되었다 | 22 | 27.2 |
| 별로 차이가 없었다 | 37 | 45.7 |
| 약간 저하되었다 | 3 | 3.7 |
| 매우 저하되었다 | 0 | 0 |
| 계 | 81 | 100 |

〈표 10〉에 의하면 정신전력 교육 평가점수 향상에 대한 설문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장병은 19명(23.4%)로 나타났고 약간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장병은 22명(27.2%)로 나타났으며,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37명(45.7%)이고 약간 저하되었다는 3명(3.7%)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 암기식 교육보다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육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V. 한반도 평화와 변형시대의 군 정신전력교육 발전방안

1. 정신전력 교육 내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은 인간형성 내지 인간성장, 발달의 과정¹⁷⁾으로서 학교나 회사 등 어느 집단이건 생활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체제를 완벽히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국가관)”, “누구로부터 지킬 것인가?(안보관)”, “어떻게 지킬 것인가?(군인정

17) 윤형보, 「교육방법론」(서울: 탐구당, 1982), p.3.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신)”를 장병들에게 확고하게 신념화 시킬 수 있는 정신전력 교육 문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 군의 적으로 되어 있던 북한과는 정부적 차원의 화해 협력이 날이 갈수록 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전력 교육 방향 설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육은 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큰 틀로 요약된다. 즉,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부대의 정신전력 극대화 및 대적 필승의 자신감이 넘치는 정병 육성에 기여함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군이 어떠한 정치, 안보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군인본분의 기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인의 본분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서 찾을 수 있다.¹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군의 이념을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군의 사명을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은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국제 평화유지의 기여라는 임무 완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성장 배경이나 입대 동기, 의식, 가치관, 교육수준, 종교 등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방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전력교육 강화를 위해 군이 연구 노력을 집중할 때 군인본분의 정신교육이 정착될 뿐만 아니라 정신전력 교육 자체에 대한 정체성 시비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장 제 5조 “강령”(국방부령 제897호, 2016.6.28. 제정)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둘째, 군 정신교육은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¹⁹⁾ 즉, 군의 정신교육은 정신전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군인 기본교육을 강화하되, 국민정신교육에 이바지하고 국가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일을 대비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한민족 당사자 간의 분단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²⁰⁾ 통일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므로 북한에 대한 동포애적인 시각을 전제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되,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위와 번영이라는 국가이념을 구현하는데 존재 의의를 갖는다. 우리 군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와 민족,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 장병들이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장병들이 군인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통일의 역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교육 방법 역시 일방적 획일적인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토론이나 개방적인 논의도 허용하는 그야말로 민주적인 교육 방법이 반영되도록 전반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셋째, 군에서 부대 교육의 기본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정신교육 교재를 분석해 보면 장병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를

19)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3), pp.52~53

20) 고유환 외, 「남북한 화해협력 추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교육원, 2000), p.7.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내용에 걸맞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장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주제를 명확히 선정하고 있어 교재로서의 전반적인 틀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과 아무리 집필 내용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사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지 못하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군의 독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화랑대연구소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서 평가²¹⁾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재는 주제의 진행을 1, 2부로 하여 원론과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과의 주제에 대한 내용의 논리적 뒷받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선택된 사례들의 선정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교재를 개편할 경우에 현역 장교가 아닌 사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재제작위원회를 편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집필 작업을 의뢰하되, 국방자문위원(國防諮問委員)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안보환경에 직면하더라도 확고한 정신무장을 신념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증과 감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예산 문제이므로 이는 범 국방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환경 및 방법 개선

정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적합한 환경과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강구

21) 이남택 외, 「장병 정신교육 교재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 p.5.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관심을 일반 사회의 학교기관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사실 군은 연간 70만 명에 가까운 장병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매주 40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매년 25만 명 이상이 사회로 환원되는 거대한 교육 집단이다. 더욱이 이들 피교육생들은 모두가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국민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러한 교육 집단을 대상으로 대대급 단위로 교육용 강당을 설치해 주는 것은 ‘교육은 곧 국가 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소규모 학급편성을 위한 시청각 교육보조 재료를 포함한 별도의 교육 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군이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신교육의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병사들로서 기성세대인 교관이나 지휘관과는 다른 사회 심리적 특성과 학습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군 정신교육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맞물리면서 정신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신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에서의 정신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행동화 정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지적(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 행동적인 영역에서도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정신교육 기본교재의 학습목표 진술에 있어서도 현재의 ‘이해’, ‘인식’ 등으로 일관화하기보다, 2018년 이후의 교육 모습을 구상하고,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습목표 제시 및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훈장교들의 교육에 대한 지식·역량을 함양하고, 상급부대에서는 행동화된 활기찬 정신교육 분위기가 야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군대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과거의 군 정신전력 교육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에 임하는 열기와 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IP-TV를 활용한 정신전력 교육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또한 군대 내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군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참고 및 교양도서, 그리고 인터넷 및 인트라넷²²⁾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를 실시간(實施間)으로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실제 교육을 해야 할 교육 담당자들의 의도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재구성하여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제대별로 요구되는 덕목들이 제대별 지휘관이 총괄해야하기 때문이다.

지휘관은 제대별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신전력 교육은 지휘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개념은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정신전력 교육을 지휘관이 담당하는 교육 체제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지휘관은 정신전력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부대 관리의 책임과 일반적인 교육훈련의 책임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야전 지휘관의 하루 일과표는 매우 벅차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휘관 중심의 제대별 정신교육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해석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부대 정신전력 교육을 지휘관 중심으로

22) 2005년 말 현재 인터넷과 인트라넷은 대대급 부대까지 설치되어 있어 상급부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추진하되, 실제적인 운영에서는 지휘관이 모든 교육을 담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대원의 생활단위별로 지휘관이 핵심이 되어 총괄적인 지휘 하에서 책임 있는 정신전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휘관은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 병과 및 참모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을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때 지휘관이 정신전력 교육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도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효과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3. 제도발전

우리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 분위기는 일부 조성되고 있으나 군 조직만큼은 아직도 적대감 속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측은 ‘조선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무력적화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비단 이런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군사적 강대국들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군의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장병 정신전력 증강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여 교육이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이다. 이는 충분하고 광범위한 일반 지식을 특정 주체까지 깊이 있게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이다. 이는 미래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기술과 전문지식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을 의미한다.

셋째,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및 생활양식, 가치관, 규범을 인정하고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이다. 이는 앞의 세 가지 학습이 조화롭게 실현될 때 원만히 촉진할 수 있는 학습으로서 개인의 인성을 보다 성숙시키고 도덕적 자율성의 신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신전력 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국방대학교와 각 군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는 대통령령(大統領令) 또는 법령(法令)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의 정신교육은 현재의 남북한 군대 내에서 공히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현재와 같은 정신전력 교육은 통일 후 장병 재교육에서 안보관 등의 요인에 의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통일에 대비한 군 정신교육 체제 정비 방향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된 군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實生活)을 준비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남북한 군대 사회의 실상과 통일 후 일반 사회 및 군대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여기에 토대를 둔 가치의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 상황을 대비한 ‘가치명료화(價値明瞭

化) 교육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 군대는 통일 이전부터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통일 과정에서 예상된다. 어떤 가치가 올바른 가치인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치명료화’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군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가치덕목(價値德目)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 대비 정신교육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일 군대의 정신전력 교육은 순수한 군 내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통일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인해 통일 한국군은 북한군 장병들을 현실적으로 남한 군인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통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군 내의 기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 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이 통일 군대에 편입되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군은 이러한 세 가지 방향에 의거하여 통일에 대비한 군 정신전력 교육의 체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 협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군의 정신전력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은 군 정신교육과 관련하여 다소 우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정치사회적 영향을 보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감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군론의 제기과 군사기밀 유출 등 군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원정출산, 종교적 신념을 앞세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발생 등 국민들의 국방 의지 퇴색이 염려된다.

둘째, 군 내부적으로 미친 영향은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 설정된 주적 표현이 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안보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북 경제협력정책 추진 영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차단과 관련하여 미국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교역으로 국민들의 안보 착시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등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약화 현상 우려와 함께 북한 측이 대북 정책의 산물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우리 측의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장병들의 의식성향 면에서는 국민들의 경우와 같이 장병들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북 경각심의 이완 현상이 점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안보 우려적인 영향 하에서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를 굳건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체성의 확보가 견고치 못하며, 빈약한 예산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 시설과 낡은 장비를 개선치 못하고, 주입식 반복 형태의 채례식 교육 방법 등 교육지원 적 측면도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대비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정신전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측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군 정신전력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신전력 교육 내용의 효율성 제고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군이 부

군사학연구 통권 제15호

여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국제 평화유지의 기여라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군대에 요구되는 제(諸)가치와 규범을 강조하고 확고한 안보관 교육과 군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교육을 부단하게 추진하되, 전인적(全人的)인 인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방식에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군 정신전력 교육은 사회성을 길러주는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통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으로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민주시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보완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본교재 집필 및 제작 과정을 개선하며 기본교재 제작을 위해 사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필을 전담시키고, 철저한 고증과 감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소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개선으로써 교육 시설 및 장비가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 발전 추세에 맞춰 최소한의 교육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야 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동화 정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지 행동적인 영역의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 정신교육 기본교재의 ‘이해’, ‘인식’ 등으로 일관화 하기보다,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습목표 제시 및 이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훈장교들의 교육에 대한 지식·역량을 함양하고, 상급부대에서는 행동화된 활기찬 정신교육 분위기가 야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자료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시대에 부합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발전방안

셋째, 정신전력 교육의 지속적인 효과 보장을 위한 제도 발전으로써 군 정신전력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통합 운영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군도 통일에 대비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를 비롯하여 각 군에 산재한 정신전력 교육 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대비 군 정신전력 교육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군의 장병들이 통합된 군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전력 교육과 가치관의 혼란에 대비한 가치명료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신전력 교육 관계관은 물론 군 수뇌부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 군을 진정한 강군으로 육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법현, “북한 이념갈등의 특징과 극복에 관한 연구 : 군 정신전력교육을 중심으로”, 「북한보 43집 1호」 (광주: 조선대학교, 2018).
- 고유환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울: 통일교육원, 2000).
- 국방부, 『국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서울: 국방부, 1998).
-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1997).
-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 지침서』 (서울: 국방부, 1988).
-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 육군본부,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대전: 육군인쇄창, 2016).
- 육군본부, 『2018년 정훈공보활동 지시』 (대전: 육군본부, 2018).
- 이남택 외, 「장병 정신교육 교재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2005).
- 이종현 등, “정신전력 육성 방안 - 정신전력교육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2000).
- 윤형보, 「교육방법론」 (서울: 탐구당, 1982).
- 태영호,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서울: 도서출판사, 기파랑 2018).
- 하두철, “국방정신전력 전담기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 44호』 (서울: 국방대학교, 2013).
-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나남, 1993).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complying with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Kim, Nam-Seok* · Park, Hyo-Sun**

This study focused on how to supplement and develop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response to promotion of peace and prosperity an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ucceed in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Strengthening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the surve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wareness level of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more than 68%.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 has been quit motivated, but, the respondents demands various methods of education. Third, the current mental power scor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environmental chang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problem of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s as follows. It is not enough to secure the identity that can firmly support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oor budget support might hinder improving poor

*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 Ph. D. in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Security, Cheongju University

education facilities and outdated equipment.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future-oriented educational system in support of traditional education methods of repetition-type repeated education and unification.

Therefore, we deduced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this paper.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to support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for enhancing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educ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s should be improved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 target. Thir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ilitary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ed in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should be pursued as a system development for ensuring the continuous effect of education.

In conclusion, continuous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eded to establish national perspective and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raise the military spirit and utilize various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efficient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New media, Nation perspectiv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Military spirit